太安二年銘 高麗銅鐘과 小鐘一口

李 永 樂

近年에 出土되어 國庫에 歸屬된 후 國立博物館 扶餘分館에 保管된 高麗銅鐘二口는 收拾의 경위가 확실할 뿐 아니라 그中 一口는 在銘品으로서 各部의 양식과 彫紋이 또한 具備되고 優秀함에서 注目할만 하다。在銘品은 年代가 비교적 오랜 것도 고려鐘의 新出土例가 거의 十三、四세기인 當代後期의 것임에 비추어 한층 귀중하다。 이하 이들 종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太安二年銘麗川出土銅鐘(圖 1・2)

出土年月日：一九六九年 七月 三十日

出土場所 ：全南 麗川郡 雙峰面 麗山里 山二十一번지 逸名寺址

龍鈕：U字形을 이룬 龍鈕는 兩足을 前後로 뻗고 含珠하였으며 (前足만 捧珠)甬筒은 竹節形인데 蓮花文을 새겼다。 頂部 周緣을 돌아서 蓮花復瓣文이 있는 것도 後代의 三角立華文과는 差異를 보이는 古式이라 하겠다。

上、下帶：각기 上下에 連珠文을 두르고 上帶에는 唐草文을 下帶에는 열으로 넓게 퍼진 重瓣의 花文을 새겼는데 下帶가 넓이 五、五cm로서 上帶보다 一cm가 더하다。

乳廓：네곳에 배치된 乳廓은 비교적 큰데 內外로 連珠文을 두른 唐草帶로서 하였으며 안에는 縱橫各三의 九乳가 細瓣蓮花文으로 장식되었는데 乳의 突起는 없다。

撞座：圓形의 重瓣花文을 안에 두고 連珠文으로 돌려 있는데 二座로서 이 鐘의 前後 兩面에 배치되어 있다(徑十cm)。 龍頭가 向하는 正面의 撞座上部이며 乳廓間에는 陽刻으로「聖壽天長」의 四字(徑二cm)가 세로 새겨져 있는데 이 陽刻文字 上下로 花文이 장식되어 있어 木牌形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곳이 이 鐘의 正面임을 가리키고 있다。

飛天坐像：撞座와 交代하여 兩側面의 乳廓間 下部에는 撞座와 거의같은 위치에 合掌跪坐한 天人 二軀가 양각되어 있다。 높이 나르는 天衣와 雲文이 上下에 새겨졌는데 이 坐像의 總高가 二十二cm로서 매우 크며 彫線 또한 鮮明하여 裝身具나 天衣의 나부끼는 유려한 線

圖 1：太安二年銘 銅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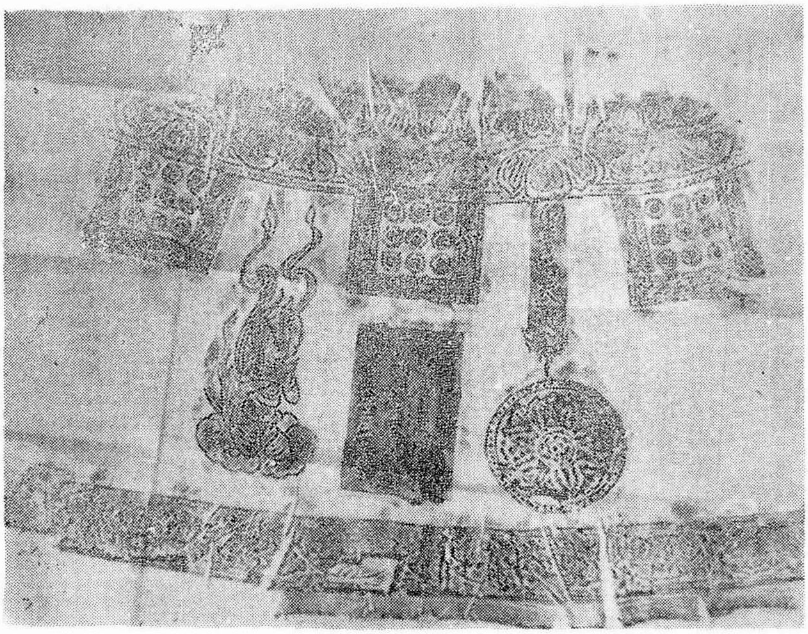

圖 2 : 太安二年銘銅鍾 拓本

이 잘 나타나고 있다。

銘文 : 이 鐘의 正面 옆 乳廓 直下에는 長方形(13×8.5㎝)의 陽刻된 銘文區劃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四行 三十六字의 글씨를 陰刻하였다。

長生寺金鍾重五十斤
棟樑寺主重□得漢
京戊□正春元純納
十六斤 太安二年 十二月日(字徑 一、五㎝)

먼저 太安은 遼 道宗의 年號로서 그 二年은 고려 宣宗 三年(一〇八六)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一九六七年 驪川郡에서 出土된 清寧四年銘 大鐘(고려 文宗 十二年 一〇五八)에 이어서 解放後 발견된 年代가 高古한 作品이다。 長生寺는 혹시 바로 出土地에 있었던 寺名으로 보이나 확실하지는 않고 文獻 또한 찾을 수가 없다。 金鍾이라 하였는데 他例에서도 볼 수 있으며 棟梁은 이 長生寺主이고 十六斤을 施納한 人名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종의 重量은 五十斤이라 하였다。 文字는 다소 치졸하나 크며 刻線이 깊어서 判讀할 수 있으나 二字가 不明함이 유감이다。

크기 : 全高가 五十·七㎝로서 中鍾에 속하며 甬筒高가 十四㎝로서 鍾身高는 약 三五·六㎝이다。 形態는 胴部가 多少 부르나 다시 下帶에서 약간 緊縮되고 있어 羅代末의 유영을 지니고 있으나 各部의 彫飾은 羅末鐘의 그것과 같이 流麗纖弱하지는 않다。 一見 거치른 手法을 보이나 龍鈕와 어울려 上下의 均衡을 얻은 高麗初의 佳品이라 하겠다。 거의 完全하나 上帶와 乳廓一部에 徑 약 五㎝의 破孔이 있

圖 3 : 扶安出土小鍾

다。口徑 二六·四cm 厚 一·八cm。

(2) 扶安出土 高麗小鐘 一口(圖3·4)

全高 三十·四cm에 불과한 小鍾이나 破損이 없고 龍鈕가 특이한 고려下代의 아담한 作品이다。鍾身의 形式은 小鍾이긴 하나 各部의 양식을 구비하였으며 彫線 또한 유려하고 刻明하다。

出土年月日: 一九七〇年 二月 十四日

出土地:　全北 扶安郡 扶安面 남포리 五二〇번지(희롱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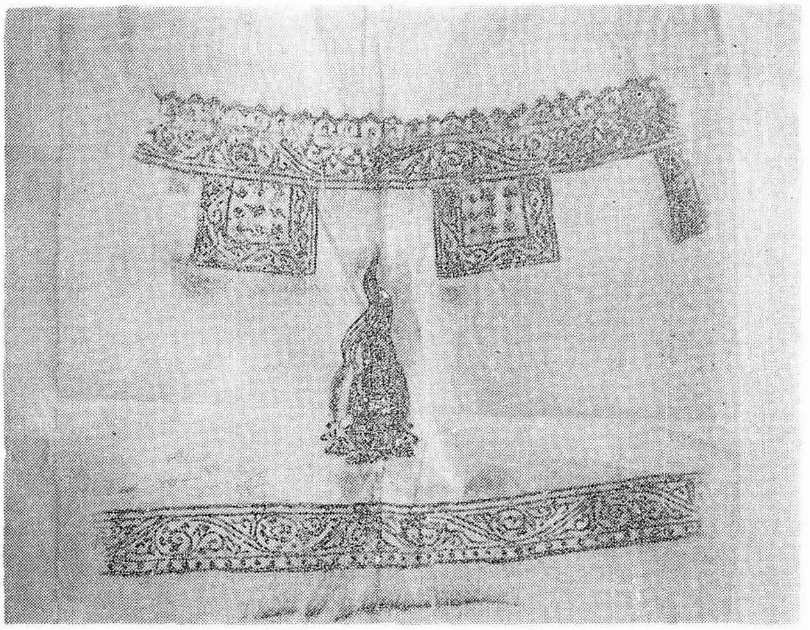

圖 4: 扶安出土小鍾拓本

龍鈕: 龍身으로서 甬筒을 감아올라가서 頂上에서 고리를 이루고 있다。龍은 含珠하였으며 前後足으로도 구슬을 받들었다。

上下帶: 上帶와 접하여 三角立華帶가 돌렸으며 上下가 모두 唐草文으로 彫飾되어 있는데 蓮珠文은 下帶에서만 볼 수 있다。

乳廓: 四乳 各九乳인데 唐草文帶로서 區劃되어 있다。身高에 비하여 작아보인다。

撞座와 坐像: 龍頭의 方向인 乳廓間 下部에는 坐像 一軀가 배치되어 있으며(蓮花座위에 合掌趺坐함) 이와 反對位置에는 圓形撞座가 하나 배치되었을 뿐이다。撞座는 内區에 重瓣蓮花文 外區에 唐草文이 細彫되어있다。銘文은 아니보인다。

크기: 鐘身高 二〇·四cm 口徑 十七·〇cm 厚 二·二cm 全面에 푸른 녹이 덮여있어 아름답다。

이 扶安小鐘에는 다음과 같은 遺品이 同伴되었으므로 寺址로 推定된다。伴出品目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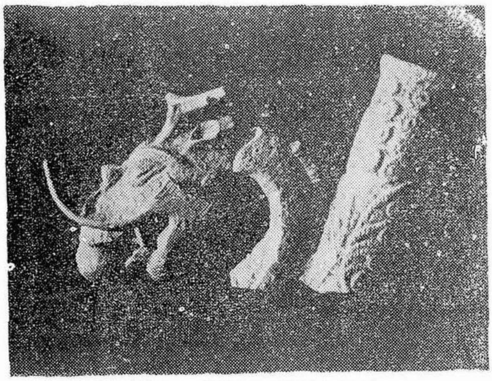

圖 5: 龍頭와 甬筒(破品)

(1) 靑銅金鼓: 無銘完存　高 六·八cm　徑 二五·六cm

(2) 靑銅香爐: 身部損傷하고腐蝕甚함 高 二五·五cm 口徑二二·八

(3) 靑銅龍頭와甬筒破品: 龍頭高九·五cm 甬筒高十三·二cm同徑四·三cm

(4) 靑磁素文皿: 花形으로굽이 없다

(3)은 完破된 銅鐘의 部品으로 같이 出土된 것인데 含珠한 龍頭의 細部까지 鮮明하며 甬筒에는 고사리 紋이 양각되어 있다 (圖 5)